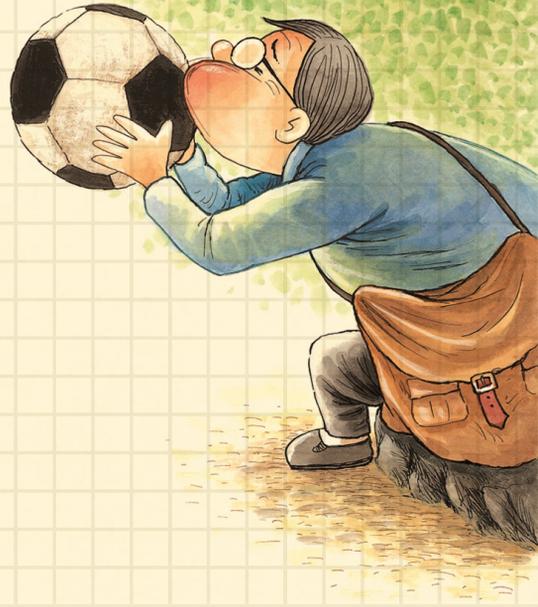


# 밥풀 할아버지

글 박민선, 그림 김태란 / 책고래



## 쌀 포대에 구멍이 나도, 축구공이 찢어져도 밥풀만 있으면 똑딱!

까늘 밥풀을 들고 다니는 재미있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봉구네 할아버지인데요, ‘밥풀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가방에 밥풀 통을 가지고 다니며, 아무 때나 밥풀을 꺼내서 붙이거든요. 쌀 포대에 구멍이 났을 때도, 동네 아이들이 차던 축구공이 찢어졌을 때도 밥풀 하나로 똑딱 해결해요. 물론 완전한 해결이라 말할 수 없는 밥풀 할아버지만의 방식이지요. 봉구는 그런 할아버지가 못마땅해요. 세상에는 밥풀보다 잘 붙는 게 얼마나 많은데, 왜 밥풀이냐고 툭툭거리지요. ‘왜 밥풀일까?’ 독자들은 읽는 내내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작가는 할아버지와 밥풀에 얽힌 사연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요. 다만 할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봉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넌지시 보여 줄 뿐이지요. 밥풀, 그리고 밥은 할아버지에게 어려운 시절을 이겨 낼 수 있는 힘이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이어 주는 끈끈한 ‘정’이란 것어요. 할아버지는 밥풀로 서로 떨어지고 다친 것들을 보듬고 고쳐 주려고 하지요. 유쾌하고 익살스러운 이야기 곳곳에서 따뜻함이 전해지는 것은 어쩌면 정 많은 할아버지의 소박한 마음씨 때문일 것입니다.

## 독후 이해 활동

Q [밥풀 할아버지]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풀이한 뜻이 맞도록 연결해 보세요.

- |          |   |                      |
|----------|---|----------------------|
| 공싯거리다    | • | 서로 잘 조화되어 같이 일하다     |
| 악다구니를 쓰다 | • | 마음에 들지 않아 관심이 거의 없다. |
| 장단이 잘 맞다 | • | 어찌할 바를 몰라 이리저리 머뭇거리다 |
| 호들갑 떨다   | • | 말이나 하는 짓이 야단스럽고 방정맞다 |
| 내키지 않다   | • | 기를 써서 다투며 욕설을 하다     |
| 심드렁하다    | • |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다     |

Q 봉구와 현석은 종이로봇을 들고 마당으로 냅다 뛰어나오며 이야기가 끝납니다.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예) 구멍 난 쌀 포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람 빠진 축구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봉구할아버지는 전국노래자랑에 나가셨을까요?동네 친구들과는 어떻게 지내게 되었을까요?

.....

.....

.....

.....



### 독후 활동 이어가기

Q 다음과 같이 친구와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각자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세요.

 <p>민수가 너무 재미웠어요. 나도 모르게 게임기 전원을 눌러 버렸어요.</p>	<p>봉구의 입장-</p> <p>.....</p>
<p>봉구의 입장-</p> <p>.....</p> <p>민수의 입장-</p>	 <p>나쁜 자식! 자기가 못한다고 끄는 게 어디 있어?</p>
 <p>우리가 왜 아빠가 없어? 그냥 떨어져 있을 뿐이야!</p> <p>우리 아빠한테 다 이를 거야. 참, 너는 아빠 없지?</p>	<p>현석이의 입장-</p> <p>.....</p> <p>민수의 입장-</p>

㉠ 봉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삽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모습으로 가정을 이룹니다. 나와 다름이 아닌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 서로가 존중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생각해 볼까요?

㉡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짠~ 하고 나타나 해결해 주는 밥풀 할아버지! 여러분에게도 이런 분이 계신가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자매? 또는 친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칭찬 스티커를 만들어 전해 보세요.